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에 건립...지역 문화계 관심

# 동부권 문화허브 기대...지속적 예산 확보 관전

### 여수·순천 문화계 반발 지역갈등 해소 과제도

전남도립미술관 건립 위치가 광양시 옛 광양역사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 지역 문화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전시공간이 부족했던 전남 동부지역에 도립미술관이 건립되면 '문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소장품 구입과 전시 기획, 전문인력 양성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300억원 투입 도립미술관 건립=전남도는 모두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양의 옛 기차역에 도립미술관을 건립한다. 300억원의 예산 가운데 200억원은 건축비, 50억원은 부지매입비에 쓰고 나머지 50억 원으로 전시 작품을 구입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8월말까지 진행되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오는 2018년 개관하는 도립미술관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립미술관의 연면적은 8000㎡ 규모로, 미술관 내에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편의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전남도의회 승인,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보예산에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계획이다.

전시 작품은 전체 미술관 컨셉에 따라 구입, 기부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립미술관 건립은 전남 미술인의 오랜 염원이자 '예향 전남'



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립미술관 건립은 이낙연 전남지사의 공약으로, 전남도는 후보지 평가에 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제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참여시키는 등 공정성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전남도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천한 후보지 적격심사를 거쳐 예비명단(27명)을 작성한 후 제천시·군의 추천을 통해 9명으로 구성했다.

평가 기준은 입지 여건 및 주변과의 조화성, 부지의 개발 여건, 미술문화 활동과 발전 잠재력, 균형발전 기여도, 시·군 및 주민의 협력 의지 등 5개 항목으로 했다.

평가위원장을 맡은 최병길 원광대 미술학과 교수는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 도립미술관 건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 선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소장품 구입 등 예산 지원이 관건=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립미술관은 그동안 전남 동부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변변한 문화시설이 부족했다.

이에 미술관 개관 전, 소장품 구입과 기획 전시·예술 프로그램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도 단위 미술관 중 피카소 전시 등

눈여겨 볼 전시회를 잇달아 열고 있는 전북도립미술관의 경우 해마다 2억~5억원에 소장품 구입에 쓰고 있다. 또 2억~2억 5000만원의 전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문을 연 전북도립미술관은 개관 초기에는 소장품 구입비를 한 해 5억원 이상씩 집중 지원해 1195점의 작품을 구입했다.

특히 대형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 전북도는 8억~9억원에 달하는 전시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도 아시아현대미술 전시를 위해 5억원가량을 추가 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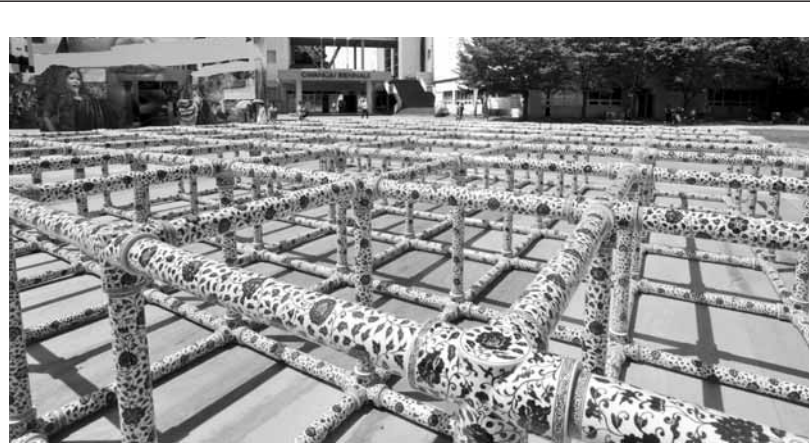
전북도립미술관은 연평균 10여회의 전시를 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립미술관 관계자는 "미술관이 건립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하고, 사전에 소장품 구입·운영 등을 위한 예산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순천 문화계 반발=전남도가 도립미술관을 광양에 건립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그동안 유치를 추진했던 여수시와 순천시 예술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회장 등 여수지역 예술단체장들은 8일 평가위원 명단과 시군별 평가점수 공개 등을 전남도에 요구했다.

또 순천지역 문화예술인들도 이번 결과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순천지역 예술인들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김경민 chadol@



## 광주비엔날레 작품 파손 법정다툼 승소

### 아이웨이웨이 35억 설치작 배상책임 벗어

중국 인권운동가이자 설치미술가인 아이웨이웨이의 35억원 짜리 작품 <사진> 파손책임을 둘러싸고 광주비엔날레가 스위스 화랑과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광주비엔날레는 작품 파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스위스 화랑 마일러 쿤스트가 광주비엔날레와 국내 미술품 관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작품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광주비엔날레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광주비엔날레는 2011년 9월 아이웨이웨이를 공동감독으로 선임하고 그의 작품 '필드(Field)'를 전시하기로 했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스위스에 보관 중이던 작품을 운반하기 위해 A사와 관리업체 계약을 맺었고, A사는 스위스에서 부산까지 작품을 운반하는 일을 B사에 맡겼다. 그러나 도착한 작품 중 일부가 파손돼 있었고, 화랑 측은 광주비엔날레와 A사,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클래식 음악

### 국립광주박물관 11일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오는 11일 오후 4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공연 단체 '문화북극항 탕글'을 초대해 '애니메이션과 떠나는 클래식 여행'을 주제로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식 음악에 익숙지 않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베토벤, 헨델의 '유다스마카베우스 변주곡',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등 7곡을 '천재 강아지 미스터 피파디', '드래곤 길들이기' 등 애니메이션과 접목시켜 들려준다.

공연 마지막에는 모든 관객이 '에그 웨이커'라는 악기로 연주자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공연은 무료로 3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다. 문의 062-570-702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풍물세상 굿패마루' 오늘 빛고을국악전수관서 한마당

'풍물세상 굿패마루<사진>'가 광주 서구가 진행되는 빛고을국악전수관 주요 열린 국악한마당 무대에 선다. 9일 오후 7시 전수관 공연장.

'아해야 놀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마루 단원들과 제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판이다. 길놀이, 통통 판굿, 선반설장구놀이, 채상소고놀이, 삼도설장구놀이를 판이 벌어지며 마지막으로 모듬북, 대고 장구, 팽과리가 한 데 어우러진 역동적 퍼포먼스 타엔드림(Dr&dream)을 선보인다.

'풍물세상 굿패마루'는 전통을 기반으로 삶의 희로애락을 원시적 본능의 소리인 풍물소리에 신고 배파도 같은 풍요로움을 담은 축제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단체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에스24 '월간 채널에스' 창간

인터넷서점 에스24는 자사가 2003년부터 운영해 온 문화 월간 '채널에스'를 종이책으로 답안 서평 잡지 '월간 채널에스'를 창간했다고 8일 밝혔다.

창간호인 7월호에는 웹툰 '송곳' 최규석 작가 인터뷰를 비롯해 책 271권의 서평이 담겼다.

월간 '채널에스'에 실린 주요 명사 인터뷰와 소설가 최민석의 영화칼럼 등 여러 문화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에스24에서 국내외 도서나 전자책 2만 원어치 이상을 구입하면 받아볼 수 있고, 포인트 300원이 차감된다.

/연합뉴스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수령 40~50년생 조림  
50만주(현재 묘목 : 주당 3000원)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8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5천(보1억 월680만)
- 수암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 (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총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주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곡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350㎡ 매 9억4천만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